

# “한마음 한뜻, 이강인과 선수들 합심해야”

### 황선홍 임시 감독, 동남아 강호 태국전 앞두고 ‘원팀’ 강조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모습이 운동장에서 잘 나타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 한국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객관적 전력상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태국(FIFA 랭킹 101위)을 상대로 대승에 도전한다.

황 감독은 “상대방도 좋은 팀이라서 존중한다”면서도 “상대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단에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자고 얘기했다”며 “내일 그런 모습이 경기장에서 잘 나타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탁구게이트, 카드게이트 등 각종 추문으로 내용을 겪고 가라앉은 축구대표팀에 팀워크를 역설한 셈이다.

황 감독과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손흥민에 따르면 아시안컵 기간 탁구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이강인은 전날 선수단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황 감독은 “대표팀 동료들과 이강인



황선홍 한국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한국-태국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합심해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좀 더 마음을 열고 화합해야 할 것 같다”며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내일이 그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의 강호 태국의 전력에 대해서는 “상대는 좀 짜임새가 있다. 기술적이고, 카운터에 상당히 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황 감독은 “얼마나 한 팀으로 상대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표팀의 조직력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감독은 “흠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르는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실망시켜 죄송...더 좋은 사람 되겠다”

### ‘탁구게이트’ 이강인, 공식 훈련 전 심경 밝혀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 앞에 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응원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앞서 이강인에 대한 축구협회가 준비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소속팀 경기 일정 탓에 전날 늦은 오후에야 입국, 이날 처음으로 동료들과 훈련했다.

이강인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일부 동료들과 탁구를 치러다가 이를 말리는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하극상’을 벌여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이강인은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컵 기간 너무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모든 분의 손소리가 앞으로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반성을 하는 기간이다”라면서 “좋은 축구선수뿐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할 말을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이강인은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할 말을 마치자마자 씩 웃으며 머리 숙여 인사한 뒤



이강인이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열린 훈련에 앞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강인이 진심어린 사과, 다 풀었고 퐁퐁 뭉칠 것”

### 손흥민 “손가락 얘기는 그만”

“강인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이강인이 일부 선수들과 따로 탁구를 치러다가 이를 말리는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하극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크게 논란이 일자 이강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에게 사과했고, 둘은 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손흥민이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였다.

손흥민은 전날 저녁, 선수단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이강인이 선후배

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어제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면서 “강인이가 모든 선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강인이가 용기 있는 자세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잘 받아들였다”면서 “똥똥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같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손가락 상태를 묻는 말이나 “손가락 기사는 이제 안 써주셔도 될 것 같다. 소속팀 감독님도 내가 축구선수다 보니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해 취재진을 웃게 했다.

그는 이어 “걱정하신 만큼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다”면서도 “축구는 팀 스포츠여서 나로 인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 정도 아픔은 모든 축구선수가 갖고 있다. 손가락 얘기는 그만 얘기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흥민은 이날 “손가락 얘기는 그만 얘기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도입·피치 클락 시범 운영

##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 ‘더 빨라졌다’

작년보다 경기 시간 19분 단축·볼넷 8.4% 감소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과 더 커진 베이스를 운용한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KBO 사무국은 시범경기 종료 일인 지난 19일 작년과 비교해 발표한 기록 자료를 보면,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58분에서 2시간 39분으로 19분 줄었다. 특히 전체 46경기 중 14경기가 2시간 30분이 안 돼 끝났다. 지난해엔 2시간 30분 이하에 끝난 경기가 2경기에 불과했다. 데이터 표본이 적어 단언할 순 없지만, 시범 운영한 피치 클락이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 피치 클락은 투수의 투구 간격을 엄격하게 계속하는 제도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는 경기 시간 단축에 큰 위력을 발휘했다. 투수는 주자가 없으면 18초, 주자가 있을 때 23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 타자도 8초가 표기된 시점에 타격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피치 클락을 정식으로 운영했을 때 이를 위반하는 투수는 볼, 타자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다. KBO 사무국은 정규리그 전반기에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당 평균 볼넷은 7개로 지난해 7.64개보다 8.4% 감소했다. 큰 의미를 들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투수와 타자들이 ABS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볼넷이 준 건 희망적이다. 15제곱인치에서 18제곱인치로 커진 베이스 덕분에 경기당 평균 도루는 작년 대비 1.66개에서 1.74개로, 도루 성공률은 68.42%에서 74.77%로 각각 늘었다. /연합뉴스

### 박찬호 30년 전 MLB 데뷔전서 쓴 글러브끼고 ‘개막전 시구’



박찬호가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하고 있다.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시구자로 초청된 박찬호는 낡은 글러브 하나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이 글러브는 30년 전 내가 MLB 개막전에 썼다. 의미 있는 시구에 함께하고자 뜻깊은 물건을 가져왔다”며 설명했다. 이날을 위해 공주 박찬호 기념관에 전시된 글러브를 가져온 박찬호는 “아침부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시구 하나 던지는데, 마치 한 경기 다 던지는 걸 앞둔 것처럼 긴장됐다”면서 “제가 성장해서 한국야구 발전과(MLB 개막전을 서울에서 하는)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